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2024
수능
국어

문학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1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가)

¹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²플라타너스,
³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이란 하늘에 젖어 있다.

⁴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⁵플라타너스,
⁶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⁷먼 길에 올 제,
⁸㉠홀로 되어 외로울 제,
⁹플라타너스,
¹⁰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¹¹이제 너의 뿌리 깊이
¹²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¹³플라타너스,
¹⁴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¹⁵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¹⁶플라타너스,
¹⁷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¹⁸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¹⁹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¹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²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³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⁴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⁵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⁶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MEMO

7쫓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8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9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10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11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12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 궁거워 : 궁금하여.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MEMO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M E M O

(가)

¹높디높은 산마루

²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³내 홀로 긴 밤을

⁴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A]
└

⁵아아 이 아침

⁶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⁷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⁸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⁹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¹⁰꽃다운 하늘이거니

¹¹내 영혼의 촛불로

¹²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¹³환히 트이는 이마 우

¹⁴떠오르는 햇살은

¹⁵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¹⁶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¹⁷오래 잊었던 피리의

¹⁸가락을 더듬노니

¹⁹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²⁰사슴과 토끼는

²¹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²²여기 높디높은 산마루

²³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²⁴내 홀로 서서

²⁵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B]
└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¹꽃이 피었다.

²도시가 나무에게

³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MEMO

4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5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6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7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8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9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10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11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12붕붕거린다는 것,
 13**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14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15뜯어 먹는다는 것
 16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17**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18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19**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MEMO

5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가)

¹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²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³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⁴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낭닝거린다. ⁵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⁶한참 찜찜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⁷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댄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⁸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 말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 ¹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 ²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 ³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 ⁴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 ⁵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 ⁶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⁷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 ⁸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 ⁹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 ¹⁰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 ¹¹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 ¹²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 ¹³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 ¹⁴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A]

[B]



¹⁵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M E M O

7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변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룻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8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MEMO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찡찡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가)

¹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
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
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²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³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⁴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
데 ⁵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⁶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
할 광장. ⁷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⁸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⁹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울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¹⁰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
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
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 ¹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 ²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 ³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 ⁴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⁵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⁶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 ⁷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 ⁸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 [B]
- ⁹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 ¹⁰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 ¹¹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¹²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C]
- ¹³적막한 늙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¹⁴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 ¹⁵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 ¹⁶저 왓새들

MEMO

17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18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19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E」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 * 약새 : 왜가리의 별명.
-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다)

1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2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3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동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4깊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5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6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7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8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9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10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11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12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13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14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보다. 15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울다. 16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17 '내년에는 벼를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M E M O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MEMO

1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험'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학생 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가)

- 1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 2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 3 서른 나문 해야

- 4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 5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 6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 7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8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 9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 10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 11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 12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 1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2 **한꺼번에** 싸게 사서
- 3 **마구** 쓰다가
- 4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5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6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7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8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 9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10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11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12 모루 위에서 버리고
- 13 솥돌에 갈아
- 14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 15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16 꼬부랑 호미가 되어



- 17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18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19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20 **온통** 부끄러워지고
- 21 직지사 해우소
- 22 어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23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 24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25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MEMO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솔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M E M O

(가)

¹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²수수럭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
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³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⁴눈동자를 보이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
지 말고

⁵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땡한 **기
생층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
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⁶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
만 내자

⁷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
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
아가자.

- 신동엽, 「향아」-

(나)

¹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²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³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⁴잠깐의 실수 때문에

⁵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⁶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⁷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⁸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⁹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¹⁰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¹¹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MEMO

¹²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¹³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¹⁴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¹⁵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¹⁶우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¹⁷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¹⁸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¹⁹어느 날 그가 우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 그 골목은

²⁰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²¹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²²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 E M O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타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밭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가)

1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2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3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4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5고향을 그린 **묵화(墨畵)**한 폭 종이 쳐.

[A]

6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7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8가시내는 가시내와 중달새 소리에 반해

[B]

9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10술레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11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12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13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14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15서릿발 앞 쳐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16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17꿈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18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19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20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1오늘, **목창**을 열어,
2**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3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4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5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6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7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8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9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MEMO

¹⁰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¹¹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¹²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¹³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¹⁴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¹⁵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¹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²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³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⁴“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⁵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⁶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⁷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⁸이 어찌 된 일인가? ⁹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¹⁰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¹¹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뻣뻣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¹²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¹³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¹⁴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¹⁵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MEMO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MEMO

9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10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으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MEMO

11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폼’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